

설날은 ‘구정’ 또는 ‘음력 설’ 이라고도 합니다.

매년 음력 1월1日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신정보다도 구정을 지냅니다. 설날때는 관공서와 회사와 상점등의 대부분이 쉽니다.

한국의 정월은 차례와 함께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정장으로 차려 입은 일가의 남자들이 위패 앞에 모여 선조에서 제사를 올리는 것이 차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설빔’ 즉 신년의 새옷으로 갈아입은 가족들이 모여서 차례를 드리는 것입니다.

탕, 나물, 술, 과일 등을 차려놓고 절을 올립니다.

차례가 끝나면 나이 어린 사람부터 순서대로 조부모, 부모에게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이것을 세배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세배를 하고 신년 인사를 하면 어른은 어린이 한명 한명에게 세배돈을 줍니다.

세배돈은 일본의 오도시다마를 말합니다.

세배를 하고 나서는 조상님들 성묘를 갑니다.

술과 음식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조상님들의 묘를 찾습니다.

조상님께의 성묘가 끝나면 정월의 의식은 끝납니다.

나머지는 가족이 정월 놀이를 즐깁니다.

정월의 놀이 중에는 일본에서도 하는 ‘연날리기’를 비롯해 여러 가지 놀이가 있습니다.

정월의 여성의 놀이에는 ‘널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소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서서 뛰는 것이 다릅니다.

연날리기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이랑 동양의 여러나라, 또 서양에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설날부터 보름까지 하는데 보름에는 하늘 높이 날린 연의 줄을 끊어 그 해의 소원과 함께 날려 보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신년을 보내는 방법은 틀리지만 좋은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